

씨젠, '델타·람다' 찾는 진단시약 개발

3시간 안에 코로나 변이 감염 확인

델타·람다 코로나 주력종 판단
비안두도말법 외 타액으로도 검사
신규 변이 '뮤' 진단제품 개발착수



씨젠 연구원이 서울 성동구 씨젠 의료재단 분자진단센터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분석·검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씨젠이 코로나19 주력종으로 자리잡은 '델타' 변이와, 신규 확산 가능성이 있는 '람다' 변이를 찾아내는 신개념 진단 시약을 선보였다고 6일 밝혔다.

씨젠이 새롭게 선보인 진단시약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이 된 '델타' 변이와 함께, 최근 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람다' 변이를 주된 타깃으로 한다.

씨젠은 ▲코로나19와 독감, RSV 바이러스 등을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동시진단 시약 ▲알파, 베타 등 현재까지 보고된 모든 우려변이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시약 등을 신속하게 개발해 시장에 제공해왔다.

씨젠은 지속적인 변이 바이러스 모니터링을 통해 '델타'와 '람다' 변이가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주력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두 가지 변이 바이러스에 특화된 제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델타' 변이는 짧은 잠복기와 빠른 전파력으로 8월 말 기준, 전 세계 163개국으로 확산됐다. '람다' 변이에 대한 우려

의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10월 페루에서 처음 확인된 '람다' 변이는 남미를 거쳐 일본, 미국 등 31개국으로 확산 중이다. 칠레의 경우 백신 접종자가 인구의 60% 이상이지만, 전체 확진자의 1/3이 '람다' 변이 감염자로 확인되기도 했다. '람다' 변이 역시 백신의 예방 효과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씨젠의 이번 신제품은 기존 검체 채취 방법인 '비안두도말법(콧속 깊숙한 곳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뿐 아니라 타액(침)으로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변이바이러스 감염 여부 확인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현재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 확

인을 위해서는 확진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코로나19 유전자 분석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기간이 1~2일 소요되는 반면, 씨젠의 신제품을 사용하면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와 '델타' 또는 '람다' 변이 바이러스 확인까지 약 2시간 30분 안에 가능하다.

씨젠 R&D부문 이민철 사장은 "씨젠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실시간 체크하고 있다"며 "콜롬비아에서 시작돼 최근 남미와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WHO가 '뮤'로 명명한 신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진단 제품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큐라티스, 상장전 지분 투자 427억 유치

하반기 결핵백신 글로벌 임상 계획

감염병 백신 전문 벤처 큐라티스가 연간 누적 약 427억원 규모의 상장 전 지분투자(Pre-IPO) 유치가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큐라티스는 오리온홀딩스와 청소년 및 성인용 결핵백신(QTP101)의 중국 상용화 추진을 위해 약 50억원의 전략적 투자(SI)를 유치했으며, 이 밖에 다양한 재무적 투자자(FI)에서 투자 유치를 진행해 2021년 427억원 투자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투자 유치 금액은 회사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 생산 설비 증설 투자, 임상 비용 등의 운영 자금 및 제품 상용화와 기술 역량 향상에 활용할 계획이다.

큐라티스는 올해 초 대신증권, 신영증권과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동 대표 주관 계약을 체결해 상장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 하반기 기술 특례 상장 신청을 위한 기술 평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2016년에 설립된 큐라티스는 백신 전문 벤처 기업으로, 현재 청소년 및 성인용 결핵백신(QTP101) 상용화에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5월 국내 성인용 2a상 임상시험 및 6월 청소년용 1상 임상시험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결과 보고를 통해 결핵백신의 안전성과 면역원성 측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확보했으며, 하반기 아시아 5개국에서 글로벌 후기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동국제약, 식약처 'QbD 지원기업' 선정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

불량률 감소·생산 효율성 증대 기대

동국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제도 도입 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맞춤형 QbD 기술 컨설팅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동국제약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자체 개발 중인 '특수제형 주사제'에 QbD 기술을 적용,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고품질 의약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QbD 기

술 컨설팅 지원은, 단계별로 분야를 세분화해 개발 현황과 품목 특성에 맞는 약 3개월 간의 맞춤 컨설팅이 제공될 예정이다.

QbD 제도는 의약품 제조는 물론 사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사전 예방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통한 의약품 불량률 감소와 생산 효율성 증가로 제약산업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세경 기자

JW중외제약, 'URC102' 제조기술 유럽 특허

(통풍치료제 신약후보물질)

화합물 제조방법, 중간체 특허
美, 日 등 20여개국 특허 출원

JW중외제약이 글로벌 신약으로 개발하고 있는 'URC102'의 제조방법이 유럽에서 원천기술로 공인받았다.

JW중외제약은 통풍치료제 신약후보물질 'URC102'의 제조 기술에 대해 유럽특허청(EPO)으로부터 특허 등록이 결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URC102'의 주성분이 되는 화합물 제조방법과 이에 사용되는 중간체에 관한 것이다.

경구제로 개발하고 있는 'URC102'는 'URAT1'을 억제하는 기전의 요산 배설 촉진제로, 혈액 내에 요산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고요산혈증으로 인



JW당진생산단지 /JW중외제약

한 통풍질환에 유효한 신약후보물질이다.

JW중외제약은 올해 3월 'URC102'의 국내 임상 2b상을 완료했다. 한국인 통풍 환자 17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 2b상에서 1차와 2차 유효성 평가변수를 모두 충족했으며 높은 안전성과

내약성을 확인했다.

'URC102'는 JW중외제약이 2019년 중국 심시어제약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시장에 한해 개발 및 판매 권리를 기술 수출한 신약후보물질이다. 현재 JW중외제약은 'URC102'에 대한 국내 후기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술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JW중외제약은 이번 유럽특허청의 결정에 따라 향후 주요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개별 서류 절차를 거쳐 최종 특허 취득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JW중외제약은 'URC102' 제조 방법과 관련해 지난해 호주, 올해 4월 남아공에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이외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20여개국에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이세경 기자

코오롱스포츠 21FW시즌 의류 라인업 강화

폴리스·미드다운류 보강

코오롱스포츠가 21FW시즌을 맞아 스테디셀러는 물론, 겨울 간절기에 유용하게 입을 수 있는 폴리스, 미드다운류를 대폭 보강했다고 6일 전했다.

코오롱스포츠는 윈드체이서, 나이트하이커 등 가을 간절기에 일상과 아웃도어 어디서나 입을 수 있는 재킷류를 꾸준히 출시해왔다. 겨울 시즌에는 코오롱스포츠의 대표 아이템인 '안타티카'로 기술력 있는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코오롱스포츠는 이런 스테디셀러들을 업그레이드해 출시하는 한편, 극한의 추위가 줄어드는 근래 겨울 날씨를 반영해 폴리스 소재 상품과 미드다운류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코오롱스포츠 21FW 료준열 화보 이미지. /코오롱FnC

폴리스 소재의 상품은 베스트부더 리버시블 점퍼, 긴 길이의 코트류까지 2020년 대비 스타일수가 125% 증가했고 물량은 3배 이상 준비했다. 또 미드다운류를 업라이트, 쿠치다운, 뉴블름, 스노우문 등 다양한 스타일로 확대, 순차적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대웅제약, 섬유증 치료 신약 유효성 확인

DWN12088 임상1상 결과 발표

대웅제약이 섬유증 치료 후보 물질 'DWN12088'의 임상1상을 통해 우수한 효과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5~8일(현지 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유럽호흡기학회(ERS) 연례학술대회에서 이와 같은 호주 임상 1상 결과를 추가 분석해 발표했다.

DWN12088은 호주에서 진행된 임상 1상을 통해 우수한 내약성과 안전성

이 확인돼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확인됐다. 다만 약물 복용시 기존 치료제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설사, 복통 등 경증의 위장관 이상반응을 줄이기 위해 임상 1상 결과를 추가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DWN12088을 투약하는 시간에 따라 이상반응 등 불편감을 견디는 내약성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임상 2상에서 용법 조절, 제형 개발 등을

통해 내약성을 향상시켜 신약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2년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 2상 계획을 신청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DWN12088을 세계 최초로 PRS 단백질을 저해하는 섬유증 치료제로 개발 중이다.

호주 임상 1상에서 안전성과 약동학적 특성,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로서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으며, 미국 식품의약품(FDA)으로부터 특발성 폐섬유증, 전신피부경화증에 대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이세경 기자

네슬레코리아 스타벅스 캡슐커피 판매처 확대

네슬레코리아가 집에서 즐기는 스타벅스 커피인 스타벅스 앳홈 캡슐커피 제품의 판매처를 전국 스타벅스 매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커피 시장이 날로 성장함에 따라 네슬레코리아는 기존의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은 물론, 스타벅스 매장으로도 스타벅스 앳홈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있

다.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와의 접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는 7일부터 소비자들은 전국 1500여 개 스타벅스 매장에서 네스카페 돌체구스토 전용 캡슐커피 제품 4종과 네스프레소용 캡슐커피 4종, 총 8종의 스타벅스 앳홈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원은미 기자